

연구논문

자연의 합리적 재마법화(再魔法化)를 위하여

이상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인식론 논쟁을 다룸으로써 정치생태학의 실천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정치생태학은 지난 30~40년 동안 환경과 개발(발전) 그리고 환경과 근대화의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생태학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 변화에 대한 과학적/역사적 탐구의 산물이다.¹⁾ 정치생태학은 크게 미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정치생태학과 유럽에서 주로 논의되는 정치생태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생태학의 정의(定義)로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블레이크와 브룩필드(Blaikie & Brookfield)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생태학이란 “생태적 관심사를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경제학과 결합시킨 담론”이다(Blaikie & Brookfield, 1987: 17). 블레이크와 브룩필드는 제3세계의 토지 고갈 및 피폐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부실한 관리, 인구 과잉 혹은 주민들의 무지에

1) 이러한 관점은 Greenberg, J. B. & Park, T. K., 1994,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 1., pp.1-12를 참조한 것임.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나 정치경제적인 제약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Blaikie & Brookfield, 1987). 즉, 정치생태학은 생태적 저하의 원인을 개인적 수준보다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Watts & McCarthy, 1997: 12).²⁾

반면 유럽에서 논의되는 정치생태학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체(代替)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서 이해된다. 즉 정치생태학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 모두 산업사회로서 경제성장 중심주의 혹은 생산주의를 기초로 하여 경제학과 생태학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회이며, 현대사회의 생태 위기는 경제적 합리성(최소비용원칙과 최대수익원칙의 결합)에 근거한 성장지향적 특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Gorz, 1980; Lipietz, 1992, 1995). 특히 경제학과 생태학의 모순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 지배’, 그리고 시공간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양적인 화폐가치로 환원시켜 이질적인 것이 하나의 영역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Altvater, 1993: 206-207).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적인 생태민주주의를 통해 잉여생산원칙, 확대와 축적 지상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Altvater, 1994: 89).³⁾

2) 브라이언트와 베일리(Bryant & Bailey)는 제3세계의 자원 이용방식이나 생태적 조건이 지구적 경제시스템이나 정치권력(국지적 권력집단을 포함하여)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3세계 정치생태학’이라고 이름 붙였다(Bryant & Bailey, 1997; Bunker, 1984; Watts, 1985, 1990; Gradus, 1987; Blaikie & Brookfield, 1987).

3) 정치생태학에는 위에서 논의한 연구주제 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연구주제가 있다. 예컨대 팀 헤이워드(Tim Hayward)의 경우는 맑스의 생산 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생태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생산력 확대에 대한 자연적 제한이 전면적으로 이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치창출 과정의 선행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인 생산조건과 생산력은 구체적인 물질적·생태적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도 철학 및

정치생태학에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담론이 존재하지만 자연과 사회가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에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정치화(politicization)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의 정치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연이 사회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연이 생산된다고 보았을 때 주된 초점은 노동에 의한 사회적 생산부문에 가게 되고 생태위기극복 전략은 생산적 노동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립된다. 그러나 자연이 구성된다고 보았을 때 주된 초점은 재생산부문에 가있게 되며 생태위기극복 전략은 재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수립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여 후자의 관점이 실천적 맥락에서 더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자연의 생산

‘자연의 생산’이라는 개념은 실재론에 근거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해서 실재론은 자연이 인간의 인식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과력을 가지

역사이론의 유물론적 전제를 설정할 때는 이 점을 알고 있었지만 후기에 경제이론을 구성할 때는 이 점을 간과하였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 맑스주의자들(eco-Marxists), 특히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처럼 생산력-생산관계의 모순(자본주의의 일차 모순)외에 생산양식-(생태적)생산조건(ecological condition of production) 사이의 모순(자본주의의 이차 모순)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오코너가 환기시키는 ‘생산조건’이라는 것이 생산 개념 자체를 문제삼을 만큼 폭넓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헤이워드, 1995: 127). 따라서 헤이워드는 생산개념 자체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여성해방론의 생산의 우선성에 대한 비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헤이워드(1995)를 참조할 것.

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Bhaskar, 1976; Dickens, 1992; Benton, 1994; Martell, 1994). 그래서 실재론은 환경이 사회의 해석과 독립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에 의해 인식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들 수 있다.⁴⁾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은 프랑크푸르트학과(Frankfurt School)에서 제시한 ‘자연의 지배’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이성의 발현으로서의 계몽은 세계의 탈(脫)마법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른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Horkheimer & Adorno, 1972: xvi). 그들은 ‘객관적 이성(주체와 객체의 동일성)’이 ‘계몽의 변증법’ 때문에 붕괴되었으며, ‘주관적 이성(주체와 객체의 비동일성)’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 주관적 이성은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되었다. 주관적 이성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보전(自己保全)’이며, 이 목적은 오직 ‘외부자연(外部自然)’을 소모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외부자연이란 자연법칙적인 움직임을 가진 것들의 총체이며 과학적 지식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과학은 철학과 분리되고 오직 도구적 합리성을 대변한다. 도구적 합리성은 외부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내부자연(內部自然; 즉 인간성)’을 억압할 뿐이다(Horkheimer & Adorno, 1972: xi).

자연의 지배, 그리고 외부자연/내부자연의 이분법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슈미트(Alfred Schmidt)의 저작(Schmidt, 1971)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반복되었다.⁵⁾ 맑스의 저술에서 나타난 자연 개념을 조명하면서, 슈미트는 자연과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서 간주하고 그 관계

4) 닐 스미스 이외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Swyngedouw(1995, 1996, 1999), Redclift(1987a, 1987b).

5) 그의 저작 *The Concept of Nature in Marx*(1971)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를 지도교수로 하여 1957년에서 1960년까지 작성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Schmidt, 1971: 9).

를 논의하였다. 슈미트에 따르면 맑스는 자연을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연 전체는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것이며 반대로 사회는 전체 실재의 구성요소로서 자연을 통해 매개된다. 맑스에게 있어서 ‘자연의 숨겨진 사변(思辨)(hidden nature-speculation)’이란 바로 이러한 연관관계의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연속되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구성체는 다양한 양식의 ‘자연의 자기매개’를 가진다”(Schmidt, 1971: 78-79).

슈미트가 보기에 맑스의 자연 개념은 부르주아 철학자들의 자연 개념, 특히 칸트와 헤겔의 개념과는 구분되며 그 중간에 위치한다. 칸트는 자신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날카롭게 구분하였다. 또한 헤겔은 절대정신이라는 ‘대주체(Subject)’가 객관적 활동(정신노동)을 통해 다시 자기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자기연관) 자연과 사회는 절대정신에 의한 관념적 동일성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맑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절대정신이 아니라 객관적 활동(물질노동)을 통해서 자기연관을 맺는다. 따라서 슈미트에 따르면 맑스의 자연 변증법은 ‘자연의 사회적 매개’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슈미트는 맑스의 자연 변증법 개념을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으로 치환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칸트와 헤겔의 중간에 맑스를 위치시키고 자연 변증법에 대한 유물론적 시각을 강조하느라 그는 자연이 노동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연을 자연의 힘으로서 직면하여 이를 변형시키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생산해냄으로써 자연은 변증법적으로 되어간다... 자연은 노동의 주체이며 대상이다. 그 변증법은 이렇게 구성된다. 인간이 진보적으로 외부자연의 이상성(異常性)과 외부성을 걸어내고, 스스로 자연과 매개하며, 자연이 자신들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자연을 변화시킨다”(Schmidt, 1971: 61).

뿐만 아니라 슈미트는 (역사적인 맥락을 등한시하고) 자연의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연이 수행하는 노동과정을 ‘자연이 영구히 부과하는 필연성’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한다(Schmidt, 1971: 91-92; Smith, 1984: 21에서 재인용). 즉, 자연의 사용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슈미트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제어(mastery)’는 인간의 모든 역사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그의 스승들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지배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조차도 필연적인 일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술적 성취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였던 맑스와 달리, 슈미트는 기술적 발전은 사회주의 국가라 해도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슈미트가 이해하는 맑스의 자연 변증법은 결국 분리된 두 가지 실재, 즉 자연과 사회의 단순한 매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맑스가 의도했던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이었을까? 닐 스미스(Neil Smith)에 따르면 슈미트의 논의에서 이러한 자연과 사회의 이중성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노동과정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다른 프랑크푸르트학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철학’으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Smith, 1984). 그리고 그가 보기에 슈미트가 이해한 맑스의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슈미트는 자연에 대한 검토가 사용가치의 영역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한다....이러한 절대적 구별은 일견 합당하며 얼핏보면 통찰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슈미트는 노동과정을 역사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사용가치)에서만 그렇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순간, 역사적으로 분리된 생산양식들은 즉각적으로 구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교환가치를 고려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만일 슈미트가 자연과의 역사적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환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그가 맑스의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한 노동과정에 대한 그의 관점은 극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Smith, 1984: 26-27).

만일 자연과의 역사적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환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닐 스미스는 슈미트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자연의 지배’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의 생산’ 개념을 제시한다(Smith, 1984: 31). 닐 스미스에 의해 설명된 자연의 생산 개념은 자연이 역사적으로 구별가능한 노동 과정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구별가능한 노동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닐 스미스가 보기에는 “자연과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회적 노동이다”(Smith, 1998: 277).

닐 스미스는 맑스가 사회적 노동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자연을 ‘분화된 통일성’으로 다루었지만 통일성과 분화에 대한 강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자연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상이한 노동 과정에 의해 분화되는 동시에 통일된다는 것이다. 즉, 상이한 노동과정속에서 우리는 상이한 자연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분화된 통일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닐 스미스는 ‘자연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의 변증법’을 도입하여 설명한다(Smith, 1984: 37).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자연이 생산되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진다. 닐 스미스는 역사적 시기를 ‘교환을 위한 생산’의 단계와 ‘자본주의적 생산’ 단계로 구분한다.

‘교환을 위한 생산’ 단계에서는 “자연과의 관계가 더 이상 사용가치적 관계가 아니다. 사용가치는 직접적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을 위해서 생산된다. 교환경제에서 자연의 전유는 점차적으로 사회적 형태와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Smith, 1984: 40). 교환을 위한 생산은 (계급별, 성별, 정신/육체) 노동 분업과 잉여가치의 창출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연의 생산은 더 확장된 범위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회적인 자연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연은 성과 계급, 정신노동과 손노동, 생산과 분배 등에 의해 분화되는데, 상품교환을 촉진하고 조절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사회적 전체가 통일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물려받은 비인간(non-human)의 총체인 ‘일차 자연’과 구별되는 ‘이차 자연’, 즉 인간 활동에 의해 생산된 자연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치 사용가치가 근대적 생산관계에 의해 변형되면서 정치경제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환가치가 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즉, 상품생산을 통해서 일차 자연으로부터 이차 자연이 생산되자마자 자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관계는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에 의한 결정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다 (Smith, 1984: 41-47).

‘자본주의적 생산’의 단계에서 자연과의 관계는 ‘교환을 위한 생산’ 단계와 질적으로 달라진다.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은 생산의 보편적인 수단이 된다. 이것은 자연이 생산의 주체, 대상 혹은 생산의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가 생산과정에 부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Smith, 1984: 49).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의 전유와 생산수단으로의 전환은 처음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제국주의의 모습을 띤 자본주의는 그 전에 존재했던 모든 생산양식을 일소해버리고, 진보라는 미명하에 농촌을 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자본주의하에서 자연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한다. 질적인 변화의 원천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변경된 관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하에서 교환가치의 역할은 더 이상 사용가치에 부수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임노동 관계의 일반화와 더불어 자연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교환가치 관계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필요 일반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한 필요, 즉 이윤의 충족을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은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며, 이 가격표가 자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Smith, 1984: 50-51). 자본주의하에서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의 차이는 ‘교환을 위한 생산’ 단계와 구분되어야 한다. 일차 자연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만 이차 자연은 사용가치의 추상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인간의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

이다(Smith, 1984: 55). 자본주의적 생산 단계에서 자연의 분화된 통일성은 사회적 노동 과정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다(Smith, 1984: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의 통일성이란 일시적인 것이다. 닐 스미스에 따르면 자연의 진정한 통일 가능성은 사회주의에 의해서 달성된다.

“사회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며 어떤 보장(保障)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통일성이 실제 가능성으로 실현되는 시간과 장소이다. 이것은 자연의 생산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통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초기의 맑스는 공산주의를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진정으로 해소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를 묘사하였다... 후기의 맑스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궁극적인 요구는 노동자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이며 그럼으로써 자연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전복과 교환가치 시스템의 통제를 통한 사회의 통제이다”(Smith, 1984: 63-64).

사회주의에서는 자연에 대한 생산을 노동자들이 통제함으로써 자연이 해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자연의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사회주의하에서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통일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적 생산 과정은 아무런 모순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⁶⁾

2) 자연의 생산 개념의 한계

자연과 사회가 사회적 노동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상이한

6) 하지만 자연의 생산을 노동자들이 통제할 경우 아무런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했지만 현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과정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바이칼 호수의 오염 사례에서 목격되었듯이 생태적 재난은 자본주의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산 개념에 대한 한계는 본 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강조한 자연의 생산 개념은 체계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자연의 생산 개념은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연의 생산 개념은 정치적 동원(動員)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첫번째 문제점부터 고찰해보기로 한다. 마이클 레드클리프트(Michael Redclift)에 의하면, 환경은 자연의 생산 그 이상의 것이다.

“환경의 변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비단 상품생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회의 재생산 능력과 자연의 소비가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재생산과 더불어 인간사회의 재생산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으로 손쉽게 환원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환경은 자연의 생산 그 이상의 것이다. 사회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시스템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족이나 체제 지속 자원과 같이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의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다”(Redclift, 1987: 228-229).

즉, 자연의 변형과정은 상품의 생산으로 국한될 수 없다. 물론 닐 스미스는 ‘생산’ 개념을 좁게 상품생산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맑스의 생산 개념을 재해석한 ‘생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 개념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해석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Lefebvre, 1991). 르페브르는 사회적 실천으로서 생산은 모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각자 철저히 분화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mith, 1998: 278). 그러므로 우리는 닐 스미스가 생산이라는 용어의 다측면성(polyvalence)을 배후의 가정으로 전제하였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7) 따

7) 닐 스미스와 유사하게 자연의 생산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사회와 자연의 재생산까지 담보하는 논의로는 Swyngedouw(1999)를 참조할 것. 그러나 스윈지도우의 입장은 용어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서 그의 생산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실천의 범주는 포괄하였지만 재생산의 범주까지 포괄하지는 않았다. 르페브르의 생산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맑스의 ‘사회적 노동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⁸⁾ 사회적 노동 개념은 사회의 재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이 점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비판되었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노동개념이 인간의 재생산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닌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맑스주의의 사회적 노동 개념은 영장류의 삶의 양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원시인류의 삶의 양식으로 가는 데 적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 8) 물론 맑스의 사회적 노동개념을 단순하게 개념화하여 한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박영도에 의하면 맑스의 사회적 노동 개념의 이중성은 칸트와 헤겔의 ‘주체철학(subject-philosophy)’에 대한 해체로 독해되어야 한다(박영도, 1995: 109-161). 사회적 노동 개념의 이중성이란 사회적 노동 개념의 두 가지 연관을 의미한다. 첫째는 사회적 노동의 대상 연관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노동은 대상적(對象的) 활동이며, 이 활동은 존재와 의식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맑스에게 있어서 객관성이란 의식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사회적 노동은 사회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테제’에서 맑스는 “인간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을 추상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총합이다”(Marx, in Elster, 1986: 12). 이것은 자기 의식의 동일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반을 형성한다.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서 사회를 규정하려 했던 관념론적 시도(칸트, 헤겔 등)를 역전시키면서 맑스는 사회의 존재론적 우선성을 제시함으로써 철학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찰성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데카르트 이래로 철학적 비판은 반성(reflection)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가 칸트에 이르러 비판의 정당성까지 회의하는 성찰(reflexion)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성찰은 어디까지나 의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맑스의 사회적 노동 개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성찰은 철학적 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인 사회적 관계라는 사회적 연관을 획득하게 된다(박영도, 1994: 129). 박영도의 이러한 해석은 성찰성이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이것은 본 논문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인간의 독특한 재생산을 포착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노동 개념은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조직된 노동과 분배의 진화적 성취는 발달한 언어적 소통의 등장보다 앞서기 때문이며, 언어적 소통은 사회적 역할 체계 보다는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특한 인간의 삶의 양식은 사회적 노동 개념을 조직의 가족적 원칙과 결합시킬 경우에만 서술될 수 있다. 역할 행동의 구조는 사회적 노동 구조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를 나타낸다. 소통행동의 규칙, 즉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하고 의식적(儀式的)으로 획득된 행동 규범은 도구적 혹은 전략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생산과 사회화, 사회적 노동과 이동의 양육은 종의 재생산을 위해서 모두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의 통합을 통제하는 가족의 사회적 구조는 근본적인 것이다”(Habermas, 1979: 135, 137-138).

하버마스가 보기에 사회적 노동 개념은 근본적 범주이긴 하지만 인간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충분한 범주가 되려면 반드시 가족적 구조와 결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족적 구조는 전략적 행동이나 도구적 행동이 지배하는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행동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자신의 구도를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⁹⁾

-
- 9) 하버마스는 노동 범주와 상호작용 범주의 엄격한 구분에 터하여 의식의 패러다임에서 언어의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시도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하버마스는 소통행위의 경험적이고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경험주의를 넘어서서 포괄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칸트주의적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즉 경험주의의 오성과 형이상학의 관념론을 동시에 넘어서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의 ‘이해’ 개념을 제안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에서 이해(understanding)란 발화자의 주장에 대한 청자(hearer)의 세 가지 차원(타당성, 진리성, 진실성)에 대한 검증(verification)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이해는 발화자의 주장이 진실하고, 정당하며,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의 세 차원 때문에, 의사소통행동은 협소한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리성에 근거한 행동이 되어 주관적, 객관적, 그리고 사회적 세계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형이상학의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생산 개념이 가진 두번째 한계는 정치적 동원능력의 부재이다. 이 점은 닐 스미스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자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보적 분석이 가진 한계와 자연의 생산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무기력증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진보정치의 ‘방부성(antiseptism)’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내가 자연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해체주의적(deconstructive)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치적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 방부처리된(antiseptic) 자연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사실에 설득되기 시작하였다... 좌파의 분석적 방부성은 자연의 생산과 의미심장한 정서적 깊이를 엮어내는 강력한 ‘자연의 대항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할 여지를 거의 남겨놓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분석은 말할 나위없이 타당하지만 ‘자연과의 관계’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경험적 공감 속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능력은 거의 없다. 나는 ‘자연의 재마법화’를 우익 진영이나 감상적 자유주의자들에게 맡겨 놓아서 안되며, 자연과의 ‘연계성’이라는 깊은 감정을 기존의 환경주의에 대한 저항에 동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mith, 1998: 279-280).

비록 닐 스미스가 ‘자연의 재마법화’를 보수진영이나 자유주의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자연의 재마법화’나 ‘자연과의 연계성’ 개념을 운운한다는 것은 의외이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특징인 자연에 대한 문화정치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닐 스미스가 보기에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따르게 되면 자연에 대

(Habermas, 1984, 1987). 즉, 하버마스는 계몽주의적 이성 개념을 버리지 않고, 도구적 합리성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사소통합리성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의사소통합리성이 지배하는 ‘생활세계(life world)’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체계(system)에 의해 식민화(colonization)됨으로써 사회의 재생산이 왜곡되는 것을 후기 자본주의의 병리현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극복해내는 동력으로서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정치적 운동은 “정치적 행동의 역사적 성취에 의해서보다는 현재의 문화적 형태와 사건들에 대한 수사적(修辭的) 진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mith, 1996: 44). 즉,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자연에 대한 문화정치가 실제 정치적 동원력이 없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자연의 생산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의 생산 개념에 정치적 동원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비합리성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연을 재마법화하여 자연을 정치화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 닐 스미스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단지 이 프로젝트가 “시학(詩學)과 정치경제학의 쓸쓸한 교차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Smith, 1998: 280). 닐 스미스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 문학에 나타난 ‘낭만의 정치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mith, 1998: 281).

그러나 우리가 ‘낭만의 정치학’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즉각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화 없는 비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보편자에 대한 개별자(혹은 특수자)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반정초주의적(anti-foundationalist)이어서 자신의 비판을 보편적으로 정당화시킬 근거를 계속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만주의를 비판했던 헤겔에 따르면, 낭만주의는 ‘직관’을 통해 자연과 통일성을 갖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이성이 아니라 협소한 오성의 또다른 표현(칸트에게 나타났듯이)일 뿐이다(박영도, 1995: 65-66). 자연과의 그러한 통일성은 결코 온전한 통일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닐 스미스가 자연의 생산 테제에 담긴 지식의 축을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헤겔적 구성주의로 이동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다(Smith, 1998: 277). 왜냐하면 헤겔적 구성주의에 의존하는 동시에 헤겔이 비판했던 낭만의 정치학에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모순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생산 논의가 가진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필자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 특히 자연의 구성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한 클라우스 에더(Klaus Eder)의 논의

가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3) 자연의 사회적 구성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첫번째 전제(前題)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사회 외부에 주어진 존재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전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여과장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자연은 사회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히 문화를 통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은 역사·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사회의 문화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유되며 문화적 실천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물고기라는 존재도 사회에 의해서 ‘물고기’라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Tester, 1991). 또한 ‘산성비’의 존재는 19세기에도 확인되었지만 1960년대에 스웨덴의 생물학자에 의해 산성비가 북유럽의 호수들을 산성화시켜 물고기들을 멸종시킨다는 사실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환경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Hannigan, 1995: 3). 더 극적인 예로는 ‘그란 차코(Gran Chaco)’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란 차코는 아마존 다음으로 넓은 규모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저지대의 건조대(乾燥帶) 평원을 말한다. 그란 차코는 열대 우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열대 우림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알려져 있지 않다(Hannigan, 1995: 3).

다시 말해서, 어떤 실체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석활동과 의미부여라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웰시(Welsh) 같은 사회구성주의자들은 환경을 사회적, 문화적 정의(定義)와 이해관계들이 서로 교차하고 경쟁하는 곳으로 간주한다(Hannigan, 1995: 185).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의미부여 행위가 환경과 사회의 통합을 보증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담론과 비물

질적 영역(이데올로기, 상상력, 상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주의에 기초한 논의들은 주로 담론분석을 통해 환경문제의 제기과정이나 해결과정에 개입되어있는 정치적 권력관계를 분석한다. 즉, 특정한 환경문제가 어떤 담론구조와 정치권력에 의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서 형성되기도 하고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Escobar, 1995, 1997; Szasz, 1994).

담론이나 비물질적 영역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 있는 논의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환경문제가 전적으로 열성 환경운동가들이나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한다(Mazur & Lee, 1993; Bailey, 1993). 그러나 에릭 스윈지도우(Erik Swyngedouw)의 경우는 자연이나 사회라는 존재의 구분 자체를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Swyngedouw, 1997). 스윈지도우는 물, 에너지, 음식, 컴퓨터와 같은 것들이 항상 사회와 자연을 무한한 방식으로 엮는다고 보고 있다(Swyngedouw, 1997: 4). 더 나아가서 스티븐 포겔(Steven Vogel)은 사회적 삶과 분리된 ‘자연 그 자체(nature in itself)’를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Vogel, 1997: 180). 자연의 가치란 담론적이고 사회적 수단에 의해서만 자연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윤리는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Vogel, 1997: 189).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어떤 자연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생태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담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Hajer, 1996: 258).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환경을 둘러싼 정치는 환경 담론을 생산하는 집단들의 형성과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제도(사회정의, 민주주의, 자연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성찰(reflexivity)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중요한 의제로 삼는 것으로 이해된다(Hajer, 1996: 265). 그러므로 사회적 구

성주의는 어떤 과학적 구성물을 환경 정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자인 클라우스 에더(Klaus Eder)는 정치생태학의 실천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답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환경을 이슈로 하는 정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국부(國富)나 개인의 부(富)를 극대화하는 사회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효용에 반하여 공유재(common goods)를 보호하는 사회를 표상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집단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제인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합리성에 대한 옹호는 환경에 대한 담론들의 갈등을 통해 형성된다. 즉 환경 담론의 각축을 통해 자연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Edler, 1996a: 205). 에더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과정이라는 것은 사회가 자연을 문화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이 문화적 구성 과정은 자연과 사회의 인지적, 도덕적, 미학적 상호작용의 역사라고 주장한다(Edler, 1996b: 7). 즉,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인지적, 규범적, 상징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Edler, 1996b: 21-32).

첫째, 자연의 인지적 구성 과정에서는 지식의 인지적 분화가 자연-사회 관계의 문화적 구성에 있어서 일차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한다(Edler, 1996b: 21). 사회적 노동분업 속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상이하게 발전하게 되면 자연에 대한 인지적 지식도 역시 상이하게 발전해간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자연에 대한 상이한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자연에 대한 물질적 전유도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단지 '비인간(non-human)'으로 인지하고 과학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인지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자연의 착취'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근대적 전유 방식도 자연에 대한 유일한 형태의 물질적 전유 방식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물질적 전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자연의 규범적 구성이란 자연-사회 관계가 결코 도덕적으로 중립

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의 인지적 구성과 더불어 “자연은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규범적인 정의(定義)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자연이 일정한 정치적 내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der, 1996b: 25). 예를 들어보자. 유럽의 근대성이 자본주의의 전지구적인 확대와 더불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자연과의 투쟁’이라는 규범이 표준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정복의 결과는 자기패배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정복의 결과에서 비롯된 ‘불확실성(uncertainty)’ 혹은 ‘위험(risk)’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에 대한 정복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의 규범적인 요소들은 오직 (사회에 대한) 필자 침부) 자연의 용도(use)로서 용해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자연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문화적 기초를 형성한다”(Eder, 1996b: 27). 즉,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충족이라는 용도를 지닌 어떤 실체로서만 간주되고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의 기본적 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근대적인 자연-사회 관계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규범적 구성에 대한 비판이 다른 사회적 구성에 대한 비판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제기하는 과정은 치열한 투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범적 차원에서 보면 자연은 사회적 갈등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자연의 상징적 구성은 “자연의 상징적 재현(representation)과 이와 결부된 소통적 실천들(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식적[儀式的]인 것을 포함하여)이며 소비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다”(Eder, 1996b: 29). 자연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규범들이 존재하듯이 자연에 대한 상이하고 경쟁적인 담론이나 사고도 존재한다. 즉, 일정한 시기와 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정통’ 담론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이에

대한 ‘이질(heterodox) 담론’ 혹은 ‘대항(counter)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근대의 자연에 대한 정통 담론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기초한 자연 담론이다.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주관적 효용과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용도라는 기준에 의해 측정되거나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질 담론 혹은 대항 담론도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낭만주의적 자연 담론, 여성주의적 자연 담론, 원주민의 자연 담론, 공동체주의적 자연 담론 등이다. 자연에 대한 이질 담론 혹은 대항 담론들은 “자연에 대한 근대적 사회 관계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서 자연이 어떤 (내재적인-필자 첨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der, 1996b: 29). 자연의 상징적 구성은 “상이한 규범적 상황에서 자연이 정치화되는 과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이 재마법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Eder, 1996b: 30). 즉, 클라우스 에더의 논이에 따르면 자연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물질적 전유 방식에 의해, 자연에 대한 상이한 규범들의 대립에 의해,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이한 자연 담론들의 대립에 의해 정치화되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하여 자연의 정치화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의 생산 개념에 기초한 자연의 정치화에 대한 설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장점을 가진다. 첫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자연-사회 관계의 포괄적인 계기(물질적 생산, 분배의 규범, 소비 문화와 담론)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의 재생산까지도 포함시켜 자연의 정치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의 재생산은 주로 소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소비는 상징과 담론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소비와 관련된 담론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환경정치를 이질 담론 혹은 대항 담론을 통한 담론들의 투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재마법화(re-enchantment)를

통한 정치적 동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근대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소외되었던 대항적 환경 담론 혹은 이질적 환경 담론을 복구시켜 탈마법화되었던 자연에 새롭게 가치부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행위의 동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제되었던 담론의 복구 과정은 이질 담론들(주로 생태중심주의적인 담론)이 정치적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담론들 간의 갈등을 통한 자연의 정치화는 매우 실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에 대한 (생태적) 성찰성(reflexivity)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 자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성, 즉 지배적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연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지, 규범, 상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행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동반하게 된다. 즉, 자연의 상징을 둘러싼 담론 투쟁을 통해 자연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사회의 기존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다시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성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문화적 진화’를 이룰 수도 있다.

4) 자연의 합리적 재마법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자연의 재마법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합리적일 수 있을까? 자연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정치화되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합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만일 자연과 인간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정치적 실천 전략이 요청되는가?

우선 첫번째 문제는 자연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 드라이젝(John Dryzek)의 답변을 참조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자연은 비록 ‘주체(subject)’는 아니지만 ‘행위자(agency)’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연은 비활성적이고, 침묵하며, 마음대로 조정가능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매우 구성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Dryzek, 1995: 20). 그리고 자연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 자연세계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負)의 피드백’이나 신호는 비언어적 형태의 소통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나 신호는 우리가 생태적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며 인간은 여기에 집단적 행동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인 행위이다.

“자연을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인간 주체로부터 나오는 신호와 똑같은 존경을 가지고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려깊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다른 말로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도구주의적 개입이나 통제를 위해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연세계와의 소통적 관계라는 것은 확연히 합리적인 일이다”(Dryzek, 1995: 20-21).

자연으로부터 오는 비언어적 신호가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게 하고 그 결과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통적(疏通的)인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비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두번째, 만일 자연이 비언어적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을 대표하여 정치적 장에서 자연의 이해관계 혹은 생태적 가치를 반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구의 녹색당들이 처한 곤경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역설을 안고 있다. 예컨대 입

후보자가 사람인 유권자의 입장보다는 나무와 호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게 되고 결국 정치적 장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인식수준은 아직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으며, 생태학은 기존의 경제주의적 가치체계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급진적인 관점일 뿐이다(Latour, 1998: 221-223).

브루노 라투어(Bruno Latour)는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생태학이 자연을 대변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연생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망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다(Latour, 1998: 229-233). 라투어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분리를 거부한다. 실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자연과 사회 혹은 자연과 문화가 섞여있는 무한한 준객체(quasi-object), 무한한 혼합체(imbroglios), 무한한 혼종체(hybridity)들의 네트워크이다(Latour, 1993, 1998).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자연과 문화(혹은 사회)가 분절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 자연과 문화, 그리고 담론과 실재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Latour, 1993: 3-5). 따라서 생태계가 가진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모두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다만 생태문제가 가진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정치생태학적 제안이 매우 국지적인 것에 불과하며, 정치생태학적 제안이 자연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투어는 칸트(Kant)의 도덕에 대한 언명을 응용하여 자연을 수단으로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목적성(finality)을 갖는 존재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칸트는 ‘목적(目的)의 왕국(王國)’ 범위를 인간에게만 한정하였지만 라투어는 이를 비인간세계에까지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만일 코끼리, 사자, 나무, 곡물, 바다, 오존, 프랑크톤이 없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실재가 ‘목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수단-목적 관계가 불확실해짐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매개자로서만 남게 된다(Latour, 1998: 230-233). 예를 들어 강이

운하가 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비용이 비싸고 쉽게 침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강이 자신의 합목적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단으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행위하는 주체의 의지에 기원을 둔 법칙”에 의거해서 강은 지류와 범람원을 거느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흘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목적-수단의 불확실성은 정치생태학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놓는데, 라투어는 이것을 ‘생태화(生態化; ecologization)’라고 불렀다.

“생태학은 자연의 이해나 목적을 고려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고려하는 또다른 방식이다. 질문이나 대상, 자료를 생태화한다는 것은 이것들을 생태계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3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온 근대화의 정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근대화된 곳을 생태화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태학을 관계들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이 슬로건의 의미는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류투성이가 된다... 생태화는 종속관계가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준객체들의 네트워크를 따라갈 수 있는 절치를 창조하는 것이며, 결국 그 네트워크를 따라가는 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활동이 요구된다”(Latour, 1998: 235).

이처럼 자연을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목적과 수단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생태화 전략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현재의 만연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생태문제의 해결 주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엘리트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비판하는 대중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합리적인 재마법화는 목적과 수단의 불확실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부(-)의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식의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문화투쟁이다. 바로 이러한 문화투쟁을 통해 반합리적이고 반동적인 자연의 마법화가 합리적인 정치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는 근대화가 초래한 생태적 재난을 목도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초래한 결과이다.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시스템의 복잡화, 그리고 전문가 지배(expertocracy)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를 우리 앞에 가져다주었다. 위험사회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중대한 재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화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이 만연한 사회이다(Beck, et al., 1994). 생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자연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자면 우리는 매우 성찰적인 시민들이 되어야 하고, 성찰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근대화의 성과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근대화가 만들어놓은 문화적 코드와 지배적 가치를 질문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연을 효용가치로만 파악하는 문화를 의문시해 보아야 하고, 물질적 복지와 경제적 성취에 의한 행복추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자연의 합리적인 재마법화는 이러한 성찰적 공동체의 기본적인 전략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참고문헌

- 박영도. 1994, 『맑스주의의 약한 부활과 의사소통 합리성』, 《경제와 사회》 겨울호(통권 24호), 22-60쪽.
- _____. 1995, 『현대 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Kant/Hegel/ Marx/ Habermas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 Altvater, E., Camiller, P.(trans), 1993, *The Future of Market: An Essay on the Regulation of Money and Nature after the Collapse of 'Actually Existing Socialism'*, London: Verso.
- _____. 1994, "Ecological and Economic Modalities of Time and Space," in O'Connor, M.(ed.), *Is Capitalism Sustainable?: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Ecolog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U., Giddens, A. & Lash, S.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Benton, T. 1993, *Natural Relations: Ecology, Animal Rights and Social Justice*, London: Verso
- Bhaskar, R. 1989, *Reclaiming Reality*, London: Verso.
- Blaikie, P. & Brookfield, H. 1987,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London and N.Y.: Methuen.
- Bryant, R. & Bailey, S. 1997, *Third World Political Ec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yant, R., 1992, "Political Ecology: An emerging research agenda in Third-World studies," *Political Geography*, Vol. 11, No. 1, Jan.
- Dickens, P. 1992, *Society and Nature: towards a green social theory*, Temple Univ. Press.
- _____. 1996, *Reconstructing Nature: Alienation, emancipation and the division of Labou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ryzek, J. 1995, "Political and Ecolog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Politics*, Vol. 4, pp. 13-30.
- Eder, K., Ritter, M.(trans) 1996a,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 Sociology of Ecological Enlighten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6b, "The Institutionalisation of Environmentalism: Ecological

- Discourse and the Second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Lash, S., Szerszynski, B. & Wynne, B.(ed), *Risk, Environment and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Elster, J.(ed.), 1986, *Karl Marx: A Rea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Constructing Nature: Elements for poststructural political ecology,” in Peet, R. & Watts, M.(eds.),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orz, A., Vigderman, P. & Cloud, J.(trans) 1980, *Ecology as Politics*, London: Pluto Press.
- Greenberg, J. B. & Park, T. K. 1994, “Political Ecolog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 1, pp. 1-12.
- Habermas, J., McCarthy, T.(trans)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London: Heinemann.
- _____.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 _____. 1987, Lawrence, F.(trans) 1987,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twelve lectures*, Cambridge: Polity Press.
- Hajer, M.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Clarendon Press.
- Hajer, M.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as Cultural Politics,” in Lash, S., Szerszynski, B. & Wynne, B.(eds.), *Risk, Environment and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 Hannigan, J. 1995, *Environmental Sociology: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Routledge.
- Hayward, T. 1994, “The Meaning of Political Ecology,” *Radical Philosophy*, 66, Spring, pp. 11-20(한글 번역본은 《창작과비평》 1995년 겨울호에 수록됨).
- Horkheimer, M. & Adorno, T. W., Cumming, J.(trans) 1972, *Dialectic of enlightenment*, New York: Herder and Herder.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To modernise or Ecologise? That is the Question," in Braun, B. & Castree, N.(eds.), *Remaking Reality: Nature at the Milleniu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efebvre, H., Donaldson-Smith, N.(trans)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asil Blackwell.
- Lipietz, A., Slater, M.(trans) 1992, *Towards a New Economic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Slater, M.(trans) 1995, *Green Hopes: The Future of Political Ec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Martell, L. 1994, *Ecology and Society*, Polity Press.
- Mazur, A. & Lee, J. 1993, "Sounding the global alarm: environmental issues in the U.S. national news," *Social Studies of Science* 23, pp. 681-720.
- Redclift, M. 1987a, *Sustainable Development: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London: Methuen.
- _____. 1987b, "The production of nature and the reproduction of the species," *Antipode*, 19(2), pp. 222-230.
- Schmidt, A., Fowkes, B.(trans) 1971, *The concept of nature in Marx*, London: NLB.
- Smith, N. 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Basil Blackwell.
- _____. 1996, "The production of nature," in Robertson, G., Mash, M., Tickner, L., Bird, J., Curtis, B., and Putnam, T.,(eds.), *Future-Natural: Nature, Science, 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 "Nature at the Millenium: Production and re-enchantment," in Braun, B. & Castree, N.(eds.), *Remaking Reality: Nature at the Milleniu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wyngedouw, E. 1995, "The Contradiction of Urban Water Provision," *TWPR*, 17(4).
- _____. 1996, "The City as a Hybrid: On nature, society and cyborg urbanization," *CNS* 7(2), June, pp. 65-80.
- _____. 1997, "Power, nature, and the city. The conquest of water and the political ecology of urbanization in Guayaquil, Ecuador: 1880-1990," *EPA*, vol. 29, pp. 311-332.

- _____. 1999, "The production of nature: Water and Modernisation in Spain," *Annals of AAG*, Vol. 89(3).
- Szasz, A. 1994, *Ecopopulism: toxic waste and the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ester, K. 1991, *Animals and society: the humanity of animal rights*, New York: Routledge.
- Vogel, S. 1997, "Habermas and the Ethics of Nature," in Gottlieb, R. S.(ed.), *The Ecological Community: Environmental Challenges for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ity*, New York: Routledge.
- Watts, M. J. 1985, "Social Theor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Case of Sudano-Sahelian West Africa," in Gradus, Y.(ed.), *Desert Development: Man and Technology in Sparselands*, Dordrecht: D. Reidel Publishers.
- _____. 1990, "Review of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by Piers Blaikie and Harold Brookfield, 1987," *CNS*, Issue 4, June.
- Watts, M. J. & McCarthy, J. 1997, "Nature as artifice, nature as artefact: development, environment and modernity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Lee, R. & Wilis, J.(eds.), *Geography of Economies*, New York: Arnold, pp. 71-86.